

사도행전 본문 연구 : 서방 사본과의 비교

송순열*

1. 머리말

신약성서의 본문 연구가 학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때부터 사도행전 본문의 연구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본문(text)에서 중요시되는 사본은 B, \aleph , A, C, 81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집트 사본(H)이라 불리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본문과 서방 사본(Western text)이라고 불리는 다른 형태의 구별된 본문이 있기 때문이다¹⁾. 서방 사본의 주된 사본들은 베자 사본(Codex Bzae; D로 표기)²⁾와 3개의 파피루스(P29, P38, P48), 13세기의 소사본(614), 5세기의 곱퍽 이집트 사본(mae), 별표가 붙은 하크린(Harclean) 시리아 사본(syr*), 라틴 사본(h) 등을 말한다³⁾. 서방 사본은 일반적으로 서방 사본의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간주되는 베자 사본보다 800 단어가 더 들어가 있고⁴⁾, 알렉산드리아 사본(Sinaiticus, Vaticanus)과 비교할 때는 8.5%가 더 길다. 이렇게 구별된 두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은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는 흥미를 불러 일으켰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 학자들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2가지로 양분되고 있는데 첫째는 서방 사본은 원래 본문을 근거로 한 2차적 편집일 가

* 한신대 교수, 신약신학.

1) 본문비평에 있어서 사본들의 족보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은 Johann Jakob Griesbach이다. 그는 Bengel과 Semler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본의 족보를 알렉산드리아(Alexander), 웨스턴(Western), 콘스탄틴(Constantinopolitan)으로 분리하였다. 콘스탄틴 그룹은 알렉산드리아와 웨스턴을 근거로 한 후대의 편집으로 보았고, 웨스턴보다는 알렉산드리아 그룹을 일찍 형성된 사본 그룹으로 보았다. 19세기에 들어 Tischendorf, Westcott & Hort 등에 의하여 알렉산드리아 그룹의 선편집설은 더 지지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Western 그룹보다 선호를 받고 있다. 사도행전의 사본들은 알렉산드리아는 codex \aleph , B 등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 Byzantine text는 uncial H, L, P, S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Codex Bzae는 500여년 경 쓰여진 것으로 왼쪽에는 그리스 원문(D)이 있고 오른쪽에는 라틴어 본문이(d) 있는 대역 사본이다.

3) 본 논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western text 안에 다른 사본들의 표기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서방 사본'(western text)이라는 총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겠으며, 사도행전 본문과의 비교는 NA²⁶편을 본문으로 채택함.

4) Bzae Text에는 8:29-10:14; 22:10-20; 22:29-끝절은 생략되어 있다.

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며, 둘째는 재구성된 서방 사본이 원본이거나 두 종류의 편집된 사도행전을 저자가 썼을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연구사⁵⁾

서방 사본이 2차적인 후대의 편집이고 원래의 사도행전의 본문을 확대시킨 것이라는 첫 번째 견해는 웨스트콧과 호르트(Westcott & Hort)에서 주장된다⁶⁾. 그들은 서방 사본은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서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쓰여진 것이라고 제시한다. 로페스(J. H. Ropes)는 서방 사본은 아마도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헬라이어 권의 기독교인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동쪽 시리아나 팔레스틴의 동쪽 지역에서 150년 경에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고 쓰여졌기에 약간의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⁷⁾. 이러한 주장은 키논(F. G. Kenyon), 디벨리우스(M. Dibelius), 엡(E. J. Epp), 헨슨(R. P. C. Hanson), 알란드(B. Aland) 등에 의하여 지지된다. 이 중에서 자신의 학위 논문을 보충하여 발간한 엡은 본문 비평은 단순한 저자의 원본적인 단어를 찾아야 할 뿐 아니라 본문의 변화를 근거로 한 본문의 역사와 해석을 덧붙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서방 사본(D)에는 반유대적인 경향이 드러남을 발견하고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에 따른 갈등이 반영된 후대의 편집임을 밝힌다.⁸⁾ 콘첼만(Conzelmann)은 서방 사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제시한다. 서방 사본은 기독교적 호칭을 다양하게 확대시켜 사용하고 있는 경향(1:21; 2:38; 6:7-8; 13:33; 등등)이 두드러지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어투를 사용(14:10; 18:4, 8; 20:3) 함으로 뚜렷한 신학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한다. 신학적인 특징은 ㄱ) 유대인을 부각(예수와 유대인:3:13-14; 13:28-9; 크리스찬과 유대인: 13:45,50; 18:12-3)시키고, ㄴ) 교회의 중요성과(4:32; 11:27), 유대적

5) 연구사에 있어서 W. A. Strange의 *The Problem of the Text of Acts*, SNTSMS 71 (Cambridge: CUP, 1992), pp.2-34 에 많이 의존하였다 각주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이 책을 따른 것도 본래 저자의 책을 사용했다.

6) B. F. Westcott & E.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vols. (London: Macmillan, 1881), pp.178f. 여기에 대한 요약으로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Y, Oxford: OUP, 1992) pp.129-137.

7) J. H. Ropes, "The Text of Acts,"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vol. III, Part I, Foakes Jackson & Kirsopp Lake edd. (London: Macmillan & Co, Ltd, 1926), pp.ccxv-ccxvi.

8) E. J.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azaar Cantabrigiensis in Acts*, SNTSMS 3, (Cambridge: CUP, 1966).

경향에 대항하여(11:15) 우주적 성격을 부각(2:17, 47)시키는 것이라고 파악하여 서방 사본의 2차적 편집일 가능성을 주장한다.⁹⁾ 이러한 지지는 NA 26ed. UBS 3ed.의 편집위원회에 반영되어 서방 사본을 2차적 사본으로 간주했다. 위원 중 메츠거는 보고서에서 짧아서가 아니라 자주 쓰이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택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지지는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에게도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윌리엄(C. S. C. Williams), 브루스(F. F. Bruce), 헨헨(E. Hanchen), 페쉬(R. Pesch), 스나이더(G. Schneider), 헤머(E. J. Hemer) 등이다.

서방 사본이 후대의 편집이라는 견해에 반대하여 누가가 두 종류의 사본을 썼다고 주장하는 초기 학자 중 대표자는 블라스(F. Blass)이다. 그는 두 가지의 사본은 한 저자에게서 쓰여진 같은 스타일이고, 1:5; 14:2; 21:16 등에서 발견되는 부가적인 정보들은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견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누가는 교회의 역사를 그가 로마에 머물 때 썼고 서방 사본에는 긴 전량이 있고,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제 2의 사본에는 서방 사본을 근간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고친 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클락(A. C. Clark)은 고문서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사본들의 전승 과정 중 복음서들은 매우 적은 줄이나 보통 10개 정도의 글자들이 전승되었고(στυχοι), 서방 사본의 경우 적절한 줄(lines of sense, κωλα)로 전승되어서 서방 사본이 원본이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원본 전체로부터의 생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주장은 잔(T. Zahn), 네슬(E. Nestle), 코니 비어(F. C. Conybeare), 윌슨(J. M. Wilson) 등에 의해 지지를 받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윌콕스(Max Wilcox)는 이집트 사본과(h) 베자 사본을 비교해 보고 서방 사본(D)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누가의 관점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편집의 과정도 두 개의 편집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독립된 발전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도행전의 베자 사본의 특징을 3가지로 제시한다¹²⁾. 첫째, D 사본에는 91개의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 중 34단어는 누가가 즐겨 쓰는 단어이다. 이러한 통계는 D 사본이 누가에 의한 작품임을

9) H. Conzelmann, *Acts of Apostle: A Commenata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pp.xxxiv-xxxv.

10) F. Blass, "The Question of the Double Text in St. Luke's Gospel and in the Acts", *The Philology of the Gospels* (London: Macmillan, 1898) pp.96-112, "The Proofs for Two Distinct Text in the Acts" *The Philology of the Gospels*, pp.113-137.

11) A. C. Clark, *The Acts of Apostles: A Critical Edi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on Selected Passage* (Oxford: Clarendon, 1933) pp. xxi f.

12) Max Wilcox, "Luke and the Bezan Text in Acts," *Les Actes des Apotres*, ed. J. Kremer (Leuven: Leven University Press, 1979) pp.447-455.

알 수 있다. 둘째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D 사본에는 사도행전의 한 절에 3단어에서 28단어를 덧붙인 것이 있다(특별히 11:2; 16:39; 19:14을 주시할 것). 셋째로 D 사본은 다른 사본에 비해 구약성서 인용에 있어서 LXX에 충실하다는 연구를 제시한다. 보이스 마르드(M. E. Boismard)는 11:2의 서방 사본에 보충되어 나오는 $\mu\epsilon\nu\ \sigma\upsilon\nu,\ \iota\kappa\alpha\nu\omicron\upsilon,\ \eta\theta\epsilon\lambda\eta\sigma\epsilon\nu\ \rho\omicron\upsilon\epsilon\upsilon\theta\eta\nu\alpha\iota\ \epsilon\iota\varsigma\ \text{I}\epsilon\rho\sigma\omicron\lambda\upsilon\mu\alpha,\ \epsilon\pi\iota\sigma\tau\eta\rho\iota\zeta\alpha\varsigma,\ \rho\omicron\lambda\upsilon\nu\ \lambda\omicron\gamma\omicron\nu,\ \kappa\alpha\tau\eta\nu\tau\eta\sigma\epsilon\nu,\ \alpha\pi\eta\chi\gamma\epsilon\iota\lambda\epsilon\nu,\ \pi\epsilon\rho\iota\tau\omicron\mu\eta\varsigma\ \alpha\delta\epsilon\lambda\phi\omicron\iota$ 등의 어휘들은 누가적인 것이고, 11:2과 19:1의 서방 사본을 비교를 통하여 두 절의 공통점 중 베드로와 바울을 평행하게 묘사하는 것, 누가가 즐겨 쓰고 LXX에 170번 등장하는 $\beta\omicron\upsilon\lambda\eta$ 의 사용, 20:3에도 다시 사용되는 $\epsilon\iota\pi\epsilon\nu\ \alpha\upsilon\tau\omega\ \tau\omicron\ \pi\nu\epsilon\upsilon\mu\alpha\ \upsilon\pi\omicron\sigma\tau\upsilon\epsilon\phi\epsilon\iota\nu\ \epsilon\iota\varsigma\ \tau\eta\nu\ \text{A}\sigma\iota\alpha\nu$ 등의 결과를 통하여 서방 사본이 의심할 수 없는 누가의 작품임을 제시한다. 보이스마르드와 라모일레(M.-E. Boismard & A. Lamouille)는 서방 사본의 단어와 문체의 연구에 획기적인 연구의 업적을 남겼다. 그중에서 서방 사본에 나타나는 것들 950개가 넘는 누가의 문체와 단어의 목록을 만들어 분류하여 A는 눅행전에 100%, B는 80%이상, C는 60% 이상으로 나누어 눅-행전의 단어나 문체 등을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과 비교하고 있다¹³⁾.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이스마르드는 누가는 서방 사본과 같은 사도행전의 1차적인 편집을 통해 책을 썼고, 몇 년 뒤에 문체나 형태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바꾼 2차 편집된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둘이 혼합되어 현재에 이르는 사도행전이 즉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 경향에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논문은 매켄지의 논문이다¹⁵⁾. 그는 서방 사본 중에서 나타나는 누가의 어휘와 관용구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 1) $\sigma\upsilon\sigma\tau\upsilon\epsilon\phi\epsilon\iota\nu$ (10:41; 11:28; 16:39; 17:5)의 사용은 눅23:12; 28:3과 같은 용법이고
- 2) $\alpha\chi\rho\iota\ \nu\upsilon\nu$ (13:31)의 사용은 20:26에서도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데 의심할 수 없는 누가의 용어이며,
- 3) $\mu\epsilon\tau\alpha\nu\omicron\nu\iota\alpha$ (13:38)은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이고(예:눅3:16),

13) M.-E. Boismard & A. Lamouille, *Le Texte Occidental des Actes des Apotres: Reconstituin et Rehabilitation* (Synthese 17;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4) 2vols.

14) M.-E. Boismard, "The Text of Acts: A Problem of Literary Criticism,"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ts Significance to Exegesis*, B. M. Metzger ed. (Oxford:Clarendon, 1981) pp.147-157

15) R.S. MacKennzie, "The Western Text of Acts: some Lucanisms in selected sermons," *JBL*104(1985), pp.637-650.

4) και εσιγησαν(13:41)은 설교 뒤의 청중들의 조용한 반응의 상징으로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며,

5) αἷμα(17:26), μαλιστα(17:27), καθ ημεραν(17:28)의 사용은 누가의 용법임을 들 어 진정한 누가의 글이라고 주장한다¹⁶⁾. SNTSMS 71호로 발간된 스트레인지의 논문은¹⁷⁾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그는 서방 사본은 짧은 본문에 설명을 붙인 주석서 같은 본문이다. 하지만 누가의 스타일과 어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두 종류의(짧은 본문과 거기에 덧붙인 주석서 같은 본문)을 남겼다. 서방 사본이 2세기의 편집자의 작품이 아닌 이유는 마가나 로마서 등의 예에서 보면 후대의 편집자의 작업들이 대체로 마지막 부분을 손질하는데 비해 서방 사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편집하지 않았고, 반유대적, 반여성적인 서방 사본의 신학적 경향이 2세기의 초대교회의 경향과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도들의 위상을 높이는 문체도 2세기의 초대교회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서방 사본이 발간된 것은 150-170년경 영지 주의자들과 말시온 주의자들이 바울을 자기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간됐다고 주장한다¹⁸⁾.

지금까지 살펴본 서방 사본의 연구사는 한 편은 누가복음을 서방 사본과 비교할 때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들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방 사본을 이해할 때 항상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들과 결부시켜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다른 편은 사도행전의 서방 사본은 문체가 훨씬 유연하고(3:11; 14:2,6,20), 특히 사도회의(15장)에서는 문체가 개선되었음(15:20, 29; 16:30,39)을 보기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서방 사본의 특징들과 평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서방 사본은 사도행전의 주본문에 비하여 첨가된 부분과 수정을 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다음은 서방 사본의 특징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다. 주본문은 NA²⁶을 택하였고 서방 사본이란 총체적인 개념을 사용

16) 여기에 대한 비판은 R.F. Hull, "Lucanisms in the western text of Acts? A reappraisal" JBL107 (1988) pp.695-707을 참조할 것.

17) W. A. Strange, *The Problem of the Text of Acts*, SNTSMS 71(Cambridge:CUP, 1992) pp.51-56.

18) Winter & Andrew D. Clark edd.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Grand Rapids, Michigan: The Paternoster Press, 1993), pp.415-444.

하나 개개의 특성에 따라 서방 사본의 세세한 사본을 밝혔고, 구체적인 논의는 피하고 일반적인 것들만 소개했다.

3.1. NA²⁶과 서방 사본이 대립되는 구절들:

단어나 문장을 삽입하여 주본문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단절을 이루는 구절들이 많다.

1) 11:17에서 서방 사본(D, syh**, mae)에는 του μη δουναι αυτοις πνευμα αχιον πιστευσαοιν επ αυτω(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림을 막을 수 없다)를 문장의 끝에 삽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

2) 14:2-5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음모가 두 번이라고 서방 사본은 묘사하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한 번이다.

3) 15:1-5의 예루살렘 회의의 시작을 안디옥 교회로 묘사하는데 서방 사본은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다고 보고한다.

4) 15:20,29, 21:25의 사도칙령에 있어서 서방 사본 중 파피루스 45에는 και της πορνειας이 생략되어 있고, D에는 και του πνικτου이 생략되어 있고 이집트 사본에는 황금률 και οσα αν μη θελωσιν εαυτοις γινεσθαι ετεροις μη ποεινι이 첨가되어 있다.

5) 15:34에는 서방 사본은 “실라는 그들과 남기로 결정하고 유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덧붙이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6) 17:4에는 서방 사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귀부인들로 구분하지만 다른 사본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귀부인으로 구분한다.

7) 18:7에서 서방 사본은 εκειθεν(회당을 지칭하는)을 잘못 이해하여 απο του Ακυλα로 바꾼다.

8) 19:9에서 서방 사본은 회당의 회중들을 지칭하는 του πληθους를 마을의 이방인(του πληθους των εθνω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9) 20:3-5에서 서방 사본에서는 유대인의 음모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바꾸고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다.

두 사본이 이렇듯 내용이 상반되는 것은 한 사본이 다른 사본을 복사하거나 편집했을 가능성보다는 두 종류의 사본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되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 증거는 매우 미미한 것이며 전체적인 내용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방 사본은 사도행전의 자료에 있어 또 하나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질 수는 있겠다.

3.2. 서방 사본에서는 보충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수정하는 구절들이 많다.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단절이 있는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1) 3:8-11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과 성전에 들어간 후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서방 사본에서는 솔로몬 행각이 성전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11절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간다(οι δε κατηβηθεντες εστησαν)고 수정함.

2) 4:6에서 Ιωαννης를 Ιωναθας로 바꿈

3) 20:15에는 지명 Τρωγυλλιω를 첨가하여 배가 항구에 들러 정박함을 제시하고 있다.

4) 21:1에서 지명 Μυρα를 첨가한 것도 ‘무라’도 당시의 짐을 옮겨 싣거나 배를 갈아타는 항구임을 알고 수정함.

5) 27:5에서 시간적인 부사구 δι ημερων δεκαπεντε 첨가

6) 15:20,29, 21:25의 사도칙령에 있어서 서방 사본 중 P45에는 και της πορνειας이 생략

7) 12:10에서 서방 사본은 κατεβησαν τους 3 βαθμους και(일곱 계단을 올라가)를 첨가함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바로 거리로 가지 않고 거리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 나왔음을 정확히 보도하려 한다.

8) 18:21에는 δει δε παντως την εορτην ημεραν ερχομενην ποιησαι εις Ιεροσολυμα(나는 어쨌든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삽입하므로 작별의 이유를 밝힌다.

9) 19:9에서 시간적인 부사구 απο ωρας εως δεκατης첨가

10) 19:28에서 δραμοντες εις το αμφοδον(그들은 광장으로 뛰어갔다)를 첨가함으로 온 도시가 소란에 빠지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11)20:4에서는 Δερβαιος(데르베 사람)을 Δουβεριος로 바꾸는데 데르베가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적은 도시 Δουβεριος로 수정하고 있다.

12) 28:16에서 εκατονταρχος παρεδωκε τους δεσμιους τω στρατοπεδαρχω τω δε Παυλω επετραπη를 첨가함.

13) 다음의 구절들은 서방 사본이 보충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임.

*. 11:2

NA²⁶: οτε δε ανεβη Πετρος εις Ιερουσαλημ διεκρινοντο προς αυτου οι εκ περιτομης...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신도들이...)

D: ο μεν ουν πετρος δια ικανου χρονου ηθελησεν πορευθηναι εις Ιεροσολυμα και επιστηριξας αυτους εξηλθεν πολυν λογον ποιουμενος δια των χωρων διδασκων αυτους ος και κατηγησεν αυτου και απηγγειλεν αυτους την χαριν του Θεου. οι δε εκ περιτομης αδελφοι διεκρινοντο προς αυτου... (한 편으로 베드로는 적당한 시간이 되어서 북쪽 지방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다. 할례 받은 형제들이...)

*. 19:1

NA²⁶: Εγενετο δε εν τω τον Απολλω ειναι εν Κορινθω Παυλον διελθοντα τα ανωτερα μερη κατελθειν εις Εφεσον ...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

D: Θελοντος δε του Παυλου κατα την ιδιαν βουλην πορευεσθαι εις Ιεροσολυμα ειπεν αυτω το πνευμα υποστρεφειν εις την Ασιαν. διελθων δε ανωτερα μερη ερχεται εις Εφεσον .. (바울은 자기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아시아로 가라고 명령하여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 16:35-39

감옥의 지진 사건이 난 후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풀어주는 사건에

D는 συνηλθον οι στρατηγοι επι τπ αυτο εις την αγοραν και αναμνησθεντες τον σεισμον (날이 밝자 관리들은 간밤에 일어났던 지진을 회상하였다)를 첨가하여 기적 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강조함. 이어서 39절에 사도들을 도시에서 떠나라고 간청하는 구절에서

NA²⁶: ελθοντες παρεκαλεσαν αυτους και εξαγαγοντες ηρωτων απελθειν απο της πολεως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D: παραγενομενοι μετα φιλων πολλων εις την φυλακην παρεκαλεσαν αυτους εξελθειν ειποντες ηγνοησαμεν τα καθ υμας οτι εστε ανδρες δικαιοι και εξαγαγοντες παρεκαλεσαν αυτους λεγοντες εκ της πολεως ταυτης εξελθατε μηποτε παλιν συστραφωσιν ημων επικραζοντες αυτους (많은 친구들과 관원들이

감옥으로 와서 그들이 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를 길게 첨가한다.

모든 서방 사본들은 비 서방 사본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의 서방 사본들은 비 서방 사본들을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거친 부분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덧붙여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하기까지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단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누가적인 것'의 증거로 삼는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의 증거는 서방 사본의 후대의 편집을 증거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편집이 누가에 의한 1차, 2차적인 편집인지 아니면 다른 필사자에 의한 편집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3.3. 기독교론적인 호칭의 특징으로 서방 사본은 예수의 호칭을 덧붙이거나 확대하고 있다.

1) κυριος Ιησους에다가 χριστος를 덧붙인 경우 (1:21; 4:33; 8:16; 11:20; 15:11; 16:31; 19:5; 21:13)

2) Ιησους χριστος에다가 κυριος를 덧붙인 경우 (2:38; 5:42; 10:48)

3) Ιησους에다가 κυριος를 덧붙인 경우 (7:55; 18:5)

4) Ιησους에다가 κυριος와 χριστος를 덧붙인 경우 (13:33)

5) 고백이나 세례의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 9:20에는 ο υιος του Θεου앞에 ο Χριστος를 삽입하고, 16:4에는 τον κυριον Ιησουν Χριστον를 끼워넣고, 20:25에는 του Ιησου를 την βασιλειαν전에 덧붙인다.

6) 6:8에는 δια του ονοματος κυριου Ιησου Χριστου를 첨가함으로 스테판 집사의 이적과 기사의 원천적인 힘이 예수임을 보이고 있다.

7) 9:17에는 εν τω ονοματι Ιησου Χριστου를 첨가함으로 아나니아에 의하여 바울의 눈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함을 언명하고 있다.

8) 9:40에는 εν τω ονοματι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 다비타의 살아남이 예수의 힘에 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9) 14:10에는 바울이 병을 고칠 때 σοι λεγω εν τω ονοματι του κυριου Ιησου Χριστου을 삽입한다.

10) 18:4에서 διελεγετο δε εν τη συναγωγη κατα παν σαββατον επειθεν τε Ιουδαιους και Ελληνας(바울은 안식일마다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

을 설득하려 했다)를 εισπνευμενος δε εις την συναγωγην κατα παν σαββατον διελεγετο, και εντιθεις το ονομα του κυριου Ιησου και επιθεν δε ου μονον Ιουδαιους αλλα και Ελληνας(D)로 고쳐 쓰는데, 서방 사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삽입함으로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예수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11) 18:8에는 δια του ονοματος κυριου Ιησου Χριστου 과 δια του ονοματος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 두 가지의 삽입이 있다.

보이스마르드는 서방 사본의 이런 기독교론적인 삽입은 서방 사본의 이차적 전승 이라고 주장한다. 즉 순수한 서방 사본 전승은 이러한 삽입이 없기에 공식화된 기독교론적인 삽입은 서방 사본의 순수 전승과 이차 전승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라고¹⁹⁾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론적 삽입을 가지고 순수 전승과 2차 전승으로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초대교회의 어느 시기부터 예수의 호칭이 신앙의 대상으로 불려지고 예배에서 신앙 고백적인 호칭으로 불렸는지 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미 예수의 모습은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하고(빌 2:5f.),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반영하는 복음서에는 그 모습을 확실히 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에는 이미 예수의 기독교론적 호칭에 대한 것은 신앙고백의 형태로 고정화되었을 것이다. 다만 약간의 형태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서방 사본의 이러한 기독교론적 삽입은 후대 전승이나 편집이라기 보다는 편집자가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편집자의 신앙고백의 형태로 볼 수 있다.

3.4. ‘성령’과 관련된 구절들에 대해서도 그 능력과 힘을 강조하기 위한 많은 첨가를 하고 있다.

1) 6:10에는 스테판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τω άγιω τω πνευματι 첨가.

2) 11:17 베드로의 질문 뒤에 3종류의 서방 사본 variant 가 첨가됨

του μη δουναι αυτοις πνευμα αγιον

του μη δουναι αυτοις πνευμα αγιον πιστευσασιν επ αυτω

του μη δουναι αυτοις πνευμα αγιον πιστευσασιν επι τον κυριον Ιησουν Χριστον

3) 15:7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음에 εν πνευματι 혹은 εν πνευματι αγιω를 첨가함.

19) Boismard and Lamouille는 TO은 순수한 western 전승이고 TO2는 2차적 전승이라고 분류한다.

- 4) 15:29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편지의 마지막에 φερούμενοι εν τω αγιω πνευματι 가 첨가됨
- 5) 15:32 유다와 실라를 설명하는 부분에 πληρεις πνευματος αγιου를 첨가함
- 6) 19:1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부분에 ειπεν αυτω το πνευμα υποστρεφειν 첨가함
- 7) 20:3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돌아가라고 말하는 부분에 ειπεν δε το πνευμα αυτω를 첨가함.

이러한 성령의 강조에 대한 첨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서방 사본의 이차적인 편집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한다. 과연 왜 편집자는 성령의 문제를 더 심도 깊게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5. 사도들의 위상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모습을 지혜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4절에서 조사한 대로 성령과 관련해서 언급되기도 한다(6:10; 11:17; 15:7,32). 다음은 그 외에 사도들의 위상과 관련된 구절들이다.

1) 5:15: 베드로의 치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방 사본은 두 종류의 변환을 가지고 있다.

i) και ρυσθωσιν απο της ασθενειας ως ειχεν εκαστας αυτων

ii) απηλλασσοντο γαρ απο πασης ασθενειας ως ειχεν εκαστας αυτων(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 마치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2) 6:10f. 스테반의 지혜와 대담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ουκ ισχουν αντιστηναι τη ουση εν αυτω και τω πνευματι τω αγιω ω ελαλαει, δια το ελεγχεσθαι αυτους επ αυτου μετα πασης παρησιας. μη δυναμενοι ουν αντοφιολμειν τη αληθεια(그들은 스테판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대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테판의 담대함을 논박하지 못하고 진리를 대항할 수 없었다).

3) 9:22 바울의 성장 모습 가운데 τω λογω를 삽입

4) 13:8 바울의 설교에 대한 서기오 바울의 긍정적인 반응을 서술하면서 επειδη ηδιστα ηκουεν αυτων을 첨가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12절에 εθαυμασεν을 첨가함.

5) 13:43 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εγενετο δε κατα

πασαν πολιν φημισθηναι τον λογον를 첨가하고 또 다른 사본은 εχενετο δε καθολης της πολεως διελθειν τον λογον του θεου로 바꾸어 쓰고 있음.

6) 14:7 에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και εκινηθη ολον το πληθος επι τη διδαχη αυτων ...를 첨가함

7) 16:4에 바울과 디모테의 대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에 나타난 스테판의 경우에 평행하게 διερχομενοι δε τας 11 οσα αν μη θελωσιν εαυτοις γινεσθαι ετεροις μη ποειν이 첨가되어 있다²⁰⁾.

학자들은 논의는 긴 본문은 칙령의 제의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고, 짧은 읽기는 윤리적인 이해라는 논란과 και του πνικτου의 생략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찾으려 한다. 이 문제는 누가 접한 유대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문제와 두재 종교의 노아적 율법과의 비교도 가능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사도행전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논쟁의 초점은 어떤 본문이 실제로 누가 쓴 작품인가 하는 것이다. 서방 사본이 누가의 작품인가 아니면 후대의 편집인가 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쉽사리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 서방 사본을 누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서방 사본이 누가의 스타일 혹은 누가 선호하는 단어(Lucanism)를 가지고 있기에 누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소위 누가의 어휘라고 주장할 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방 사본을 누가에게로 돌리는 학자들의 약점은 몇 가지로 대변된다. 첫째로 서방 사본의 기독교론이나 사도들을 표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경건적인 성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로는 서방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 사이의 불연속성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불일치도 역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와 단어가 비슷한 것만으로 두 사본들이 같은 저자의 두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서방 사본의 전승의 근원을 가지고 후대의 확장을 통한 재편집을 추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두 주장 사이의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를 창조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결론으로 하려 한다.

20)) 여기에 대한 text form의 자세한 구분은 W.A. Strange, *The Problem of the text of Acts*, p.89의 table2를 참조할 수 있음.

첫째로, 사도행전 본문 연구의 과제는 주된 사본과 상치가 되거나 보충된 서방 사본의 누가적인 용법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적인 것'의 의미를 단지 어떤 단어가 오직 눅-행전에만 쓰인 것, 눅-행전의 저자에 의해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 누가의 특징적인 면을 따르는 것이라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본문을 확인할 때, 한 구절씩 읽고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본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짧은 문장, 어려운 문장을 기준으로 사본의 오래 됨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잃어버린 모든 본문의 재건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문서에 대한 정보가 마지막 판단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고려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각 단어들, 구절들을 누가의 어휘들과 충분히 비교한 뒤 신학적인 해석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적 관점과 신학적 해석이 구별되어지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적 신학적 작업이 합쳐진 통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형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눅-행전 사본 중 가장 이른 연대는 Ευαγγελιον κατα Λουκαν이란 제목을 가진 파피루스 75인데 175-225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누가는 의사이고 바울의 동료'라고 밝힌 무라토리안 경전보다도 약간 빠른 것이다. 2세기 말에 이레니우스의 *Against Heresies* 3.1.1; 3.14.1에 눅-행전이 등장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도행전의 사본들이 발견되는 시기를 빠르게 180년 경으로 추정하고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늦추어 100년 경으로 추정하면 80여 년의 차이가 난다. 사도행전의 쓰여진 연대와 그 사본들이 처음 발견되는 연대의 차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또한 누가의 기록 목적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누가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갑자기 떨어져 나온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서서히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서서히 확장해 가는 분파로 이해하고 있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에는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방인들의 수효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누가는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이방인 선교의 합법성을 설명해야 했고, 증가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나온 합법적인 종교임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누가는 유대 종교의 관습에 매우 익숙하고(절기나 의식), 히브리성서나 칠십인역의 인용이 매우 능란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에 있어서도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꾸준한 물음과 유대 종교의 상징 예루살렘의 강조 등은 그의 뿌

리가 깊게 유대종교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가는 그레코로망의 세계에 익숙하고 당시의 문학들의 기술 방법 등에 친숙한 것을 보면 당시의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서방 사본이 누가의 작품이라면 이러한 누가의 기록 목적과 서방 사본의 신학적 경향과의 비교 연구가 세밀하게 되어야 한다. 서방 사본은 또 하나의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사실 자체가 누가 자신의 작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신약성서의 경전화 이후,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연구는 눅-행전을 따로 따로 별도의 책으로 취급했었다. 눅-행전 연구에 있어 별로 중요시되지 않던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시한 학자는 캐드베리(H. Cadbury)이다. 그는 “눅-행전은 단순히 한 사람에 의한 두 개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책이며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부록이나 후서가 아니고 눅-행전은 작가의 계획과 의도와 목표에 의한 쓰여진 일련의 연속된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성서의 경전화가 이루어지던 당시, 눅-행전이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누가복음에 비해 사도행전은 널리 읽혀지거나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크리소스톰은 사도행전을 근거로 한 설교문에(400여년 경)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저자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책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책이 많이 쓰여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전화 과정 속에서 소홀히 여겨진 책이 되었을 것이고 성서 편집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행전의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사본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가설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여 그 가설들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 블라스(Blass), 클락(Clark) 등의 가설들에 의거한 시도는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많은 시도들이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가설보다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철저한 본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1) H.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SPCK, 1961). 이 책은 1958년에 출간됐지만 Cadbury는 1925-1926년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에 눅-행전의 저자의 통일성에 대한 논문들을 이미 발표했다. “Lexical Notes on Luke-Acts I, 1925, pp.214-217.”